

원자 전문가미쓰는 부산불교 이야기

# 지역정서 맞춘 '뜸새찾기' 성공적

초청 법사의 법문은 이랬다. "스님과 일반인이 거리에서 싸움이 붙습니다. 그럴 때, 충청지역이나 호남지역에서의 반응은 '아니, 스님이 수행은 안하고 거리에서 싸움을 하고 있네' 라고 하고, 부산과 경상도 지역에서의 반응은 '아니, 속인이 스님께 뺨치고 있네' 라는 각각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김윤희 (맑은소리 맑은나라 발행인)

경상도 지역의 불자들이 '전국의 절을 다 먹여 살린다'는 우스가 말도 있다. 이것이 부산불교의 현주소이며 부산불교를 대변하는 단적인 표현인 것이다. 그러나 실은 부산불교가 그렇게 활성화의 일로를 달린대거나 실속있는 정서만을 지닌 것은 아닐 것이다. 현장을 뛰는 각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그런 발전 가능성과 함께 급부상하고 있는 분야들도 있다. 최근 부쩍 도약하고 있는 출판과 문화 예술활동에 포커스를 맞춰보자.

우선 부산의 불교출판 시장이 서울 중심의 출판문화를 점차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꼽히고 있다. 부산에서 가장 먼저 불교 출판 분야에 뛰어든 곳은 대한기획(사장 김주환)이다. 대한기획은 1980년대 후반 기획출판사로 문을 열었다. 창립 초기에는 비교적 많은 사찰이나 단체의 기획물을 작업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단행본 위주의 서적과 경전을 주로 발간하는 업체로 우뚝 섰다. 대한기획은 구매율이 저조하다는 종교출판, 특히 불교출판 시장에서 보기 드물게 시장성을 확보했다.

그런 가운데 비교적 후발주자로 꼽히는 신에 출판사 현대북스(대표 오세동)가 출판업계에 맞불을 불고 있다. 2000년 창립, 월 평균 3권의 단행본을 발간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환산하자면 대한기획을 앞지른다.

또 현대북스는 지역출판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에 사무실을 두어 중앙의 출판권을 확보하는 등 나름의 발전 방향을 꾀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두 번째로 불교출판시장에 뛰어든 도서출판 무량수(대표 주영배)는 1991년 창립된 회사로 다량의 기획물과 함께 서적을 발간하는 출판사로서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다. 무량수는 단행본의 출간은 연 2권 정도로 그리 많지

## ① 출판·문화·예술계의 변화 코드

'불교도시'라는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부산. 신행과 문화, 포교를 위한 인프라가 어느 지역보다 단단하다는 얘기가 다. 그러나 부산불교의 현상이 마냥 만족스러운 것만은 아니다. 다양해져 가는 신행과 수행의 패턴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부산불교계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현장에서 뛰고 있는 전문가들이 보는 현실은 어도한지,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야별로 점검해 본다.

알으나 범오집과 경전, 사찰 사보 출판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불교 기획물에 있어 단연 1위를 고수하는 출판사다.

1999년 월간 <맑은소리 맑은나라>라는 불교 월간지를 발행하며 동명의 출판사를 함께 운영하는 도서출판 맑은소리 맑은나라는 단행본과 함께 사찰 사보 전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기해 시집을 발간. 무가지로 배포하는 등 소신 있는 활동으로 불교문인들의 명분을 쌓고 있다.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회장 김귀련)는 타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조직으로 크고 작은 불교 행사에서 그들의 역할은 지대하다.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는 부

## 출판계 서울 중심 탈피 독자적 문화 형성 음악분야 질적 향상 비해 자생력 못 갖춰

## 무용·연극 저력 있어 그 힘 발휘될 것 기대 다양성 전문성 지닌 '뉴 페이스' 등장 요망돼



부산에서 유일한 남성중창단 '청공'의 공연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문 출판사로 거듭나고 있는 곳이다. 이밖에도 불교용품을 취급하는 도서출판 백광(대표 김수현)과 군소 출판사가 경전 위주의 출판을 맡아 출판시장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문화계를 들여다보자. 부산에는 불교 문인협회(회장 양원식)가 있어 불교 문인들의 우의를 다지고 그들의 문력성을 담은 도서를 주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산 시대 사찰과 신행단체 소속의 35개 합창단 1600명 단원들의 연합체로, 지난 5월에는 합창단장의 이름을 건 찬불가 경연대회를 여는 등 찬불가 보급 및 수준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부산에서는 유일한 불교 남성 중창단인 청공(단장 정성민)은 2004년 1월 발족돼 부산불교 음악 발전에 일조를 하고 있다. 청공의 멤버들은 이미 사찰 합

창단의 지휘와 반주를 하며 불교 정서를 고스란히 익힌 사람들로 다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 상반기만도 20여 차례의 초청 공연을 하는 등 전문 불교 중창단의 질적 향상을 꾀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이처럼 출판과 음악이라는 특별 장르 이긴 하나 부산의 출판과 음악은 불사의 수위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 업체들과 합창단의 경우, 겉으로 비쳐지는 것처럼 그다지 화려하거나 혹자를 내는 것은 아니다. 대다수 출판사들은 문화사업이라는 미명아래 아직도 적자인 업체도 있으며 이례야 비로소 적자수위를 면한 곳도 있다.

합창단의 경우도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는 직업적인 합창단이 아니라 신행 단체로서의 활동이기에 경제활동을 결부짓지 않아도 되지만 청공의 경우는 다소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생활인기에 보장되어야 할 경제활동이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그들은 부르던 달려가 해조음을 들려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부산 불교 집안의 젊은 에너지인 셈이다.

문서를 통한, 혹은 소리를 통한 포교의 전략은 사실 그 경계를 두지 않는다. 적자를 가까스로 면한 그들 문화인들은 모두 신심을 저변에 깔고 있기에 경연장을 깨끗하게 불심으로 극복한 인물들이다.

무용과 연극분야는 여전히 침체일로를 걷고 있다. 하지만, 한 때는 전국의 무용제와 연극제에서 기량을 인정받아 불교문화의 한 획을 그은 저력이 있어 언젠가 다시 그 힘을 발휘할 것을 기대한다.

이러한 신행 단체의 춘추극시대를 할 만큼 부산은 지금 많은 신행단체들이 창립되고 나름의 활동반경을 넓히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앞에서 소개한 어느 법사님의 법문처럼 그래도 포교하기 좋은 곳이 부산이고 경성권이라면 우리들이 터를 두고 있는 부산불교의 현주소는 그리 어둡지만은 않다는 얘기이다. 출판·문화·예술계의 변화도 바로 다양성 속에서 새로운 뜰새찾기의 노력이 성공을 거두고 있을 때 매우 고무적이다.

대중 속으로. 그것이 얼마나 가깝고 먼 길인지는 관망이 아닌 참여에서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불교TV 부산지사가 부산불교회관에 새 사무실을 마련, 6일 현판식을 봉행했다.

## "세계를 향해 부처님 법 전하는 전법사"

### 불교TV 부산지사 사무실 이전 개소 및 현판식

불교TV 부산지사가 부산진구 양정2동 부산불교회관에 새 사무실을 마련, 6일 사무실 이전 개소 및 현판식을 봉행했다.

불교TV 자원위원 정어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불교TV는 하나의 채널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 부처님 법을 전하는 전법사와 같다" 며 "불교TV의 발전을 위해 우리 불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이은아 기자

### 광성사, 27구 불상 점안식



부산 광성사는 7월 2일 광성사 3층 법당에 문수, 지장보살을 비롯해 네팔에서 조성한 27구(龕)의 불상을 봉안하고 점안식을 봉행했다(사진).

오전 8시 30분부터 12시30까지 네 시간 동안 이어진 이날 점안식은 태백제 전통 의식으로 일체의 불보살을 초청해 조각에 불과한 불상에 부처님의 정신을 불어 넣고 예배의 대상으로 삼주해 달라는 의미의 독경과 향, 초, 유묵민의 상징인 우유, 등의 공양물을 부처님 전에 올리는 것으로 이뤄졌다.

### 현대불교 지사안내

- 부산지사 : (051)632-0064
-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 경남남부지사 : (011)571-5316
- 울산지사 : (052)272-0909

로 이뤄졌다. 또한 달마이라마의 여름궁전인 노르블링카의 티베트예술센터에서 20명이 2년 동안 제작한 5m 크기의 자수 탕화도 함께 봉안됐다.

### 동래차밭골 다신제 성료

(사)한국다도협회 동래지구(지구장 양은순)는 7월 3일 부산 금정산 금어사(주지 월강스님)에서 제12회 동래차밭골 다신제를 봉행했다.

금어사 주지 월강스님, 여여선원 선원장 정어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동래차밭골 다신제는 기념비 제작, 동래차밭골 동인지 및 차시집 봉헌, 인사말, 축사, 가회구수 다례시연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다신제에서 금어사 주지 월강스님은 법어를 통해 "차는 곧 마음이고 차를 마시는 것은 마음을 씻고 다지는 과정"이라며 "이 행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차문화를 나누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래차밭골 다신제는 한국다도협회 양은순 동래지구장이 끊어졌던 동래차밭골 다신제의 맥을 잇고 국민안과 차밭골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13년 전 시작해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현 금어사 일대는 차밭이 조성됐던 곳으로 창포다래, 칩쌀, 다신제 등이 봉행됐다고 한다.

이은아 기자



# 달마의 氣

외출과 여행이 잦아지는 노출의 계절 여름! 그만큼 갖가지 나쁜 기운과 마주칠 기회가 많아집니다. 이제 달마의 기로 자칫 닥쳐올지 모를 나쁜 기운을 미리 예방하세요!

www.shmall.net 2006 베스트브랜드 인기상품!

## 名家인터내셔널

고객상담전화 1588-3278

호국불교효예종 법진스님 외 여러종단 스님들께서 추천한 인기 상품!!

고객여러분의 성원에 감사하는 뜻으로 달마의 氣 14K를 구입하시는 모든분들께 백팔달마그림 1점을 드립니다.

수험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선물!

# 행운충전

대리점 및 총판모집 1588-3278

무점포, 소자본으로 고소득 사업하실 분을 모읍니다.

여부터 병귀(病魔)와 사귀(邪鬼)를 물리치는 힘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달마 수맥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달마의 기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걸이와 귀고리, 핸드폰 고리를 몸에 지니는 순간 행운이 찾아옵니다.

· 제조원 : 名家인터내셔널 · 판매원 : (주)S.H상사 (주)S.H상사 - 서울시 양천구 목5동 907-14 벽산미라지타워 410호



귀고리

핸드폰줄

목걸이 (목걸이줄은 별매)